

# 승가 지도력이 포교·호법 필수 요건

## 조계종 불학연구소 '승려 의식성향과 승가상' 주제 학술세미나 열려

현대는 다종교 경쟁사회다. 더욱이 종교편향 등 이웃종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 불교의 주요 구성원인 승가의 사회적 지도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면 불교의 종교적 지위마저도 위태로워진다. 과거 계율을 지키고 수행으로써 간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승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는 승가의 지도력이 포교와 호법은 물론 불교계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10월 19일 발표한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성향 조사 결과'에서도 승가의 지도력은 강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28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조계종 승려의 의식성향과 바람직한 승가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승가 지도력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서 스님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정당한 계행의 실천'(29.2%)과, '사회적 약자 중생에 대한 자비'(22.3%),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과 통찰'(12.9%), '참선수행 이력'(12.7%), '교리에 대한 지식'(10.2%), '상당능력(4.3%)', '설법능력(3.0%)', '갈등조정능력(1.8%) 순으로 답했다.

김 교수는 "응답한 스님들이 생각하는 '스님들의 능력'은 자질론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며 "스님들의 능력은 수행적 자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율의 실천, 참선 등을 통해 자비심과 통찰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김응철 교수는 "응답분포로 볼 때 스님들이 생각하는 지도력은 간접적 지도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가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스님의 자질 향상'(35.6%)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바람직한 승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정진'(38.6%)을 꼽았다.

김 교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스님들은 전통적인 승가상에 더해 새로운 승가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승가상의 변화에서 아직 확고한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는 "승가교육을 통해 계행의 실천과 사회적 회향의 정신을 강조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승가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승가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승가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승가교육은 맞춤형 전문 교육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응철 교수는 "새로운 승가 교육 제도는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자질을 함양하는 보편적 교육에 더해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승가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별 소집단 이기주의와 문종과 교구중심적 사고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종교적 규율과 한국 승려의 사회적 역할'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안성두 교수 선정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불교평론이 제정한 '2009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됐다.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불교평론이 제정한 '2009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됐다.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10월 26일 '2009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논문 '원적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티벳 역의 성격과 의의'(인도철학 제27집 게재)를 쓴 안성두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교수는 "오늘날 불교학 연구에는 타학문 분야와 같은 통섭적이고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즐거이 선정된 것은 바로 원전이해를 위한 문헌학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자사 선생님들의 공로된 인식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두 교수는 "불교학에서 통찰적 이상의 실현은 불교고전문헌의 이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논문에서 법성(法成)의 티벳역과 같이 우수하지 않은 번역조차도 원전인 <해심밀경소>의 교정과 이해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상 수상자인 안 교수에게는 12월 11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조동섭 기자

# "업설, 공업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박경준 교수 '불교학보' 기고논문에서 주장

##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최근 발간한 <불교학보> 제52집에 주제 논문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를 기고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업사상이 개인적으로 국한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업설은 윤회사상과 결합해 일종의 속명설로 곡해됐고, 불교계의 사회관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실천에 결핍되어 왔다"고 말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A가 행하고 A가 과보를 받는 것을 상견(常見)의 극단에 떨어지는 것으로, A가 행하고 B가 과보를 받는 것은 단견(斷見)의 극단에 떨어진다고 경계했다.

박경준 교수는 "불교의 업보윤회설은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동일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통속적인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교 업설은 신, 속명, 우연을 부정하며 기본



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반경>에서 인간의 고탐(苦樂)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된 4대(四大), 시절, 토지, 인민은 기세간(器世間)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4대와 토지는 자연환경으로 시절과 인민은 사회환경을 뜻한다"고 말했다.

업의 과보는 사적이고 신비적인 방식 외에 사회적 법과 제도로도 나타난다.

박 교수는 "불교의 윤리적 분석들은 개인의 업, 고통의 원인을 개인적 무지[무명]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업설을 바로 이해해 불교도들이 사회적 문제의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고통을 야기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집단적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한국불교와 사찰경영 5일 선학원 학술회의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5일 온양관광호텔에서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제4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법진 스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이 '신도교육과 신도조직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찰 재정의 관리방안'을, 조기용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사찰경영의 모범적 사례와 사회적 평가'를 발표한다.

또, 토론자로 손희재 경기대 교수,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한편, 6일에는 온양관광호텔에서 선학원 전국 분원장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2009년 재단 운영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분원장 스님들이 지역사회의 고민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한다.

조동섭 기자

# 백제 왕궁성 후원·제석사 규모 확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자문회의서 소개

백제 왕궁성 후원(後苑)과 제석사 가람 규모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10월 30일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과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발굴현장에서 발굴조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서는 1989년부터 진행돼온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국내최초로 확인된 백제 시대 궁성 내부 후원(後苑)의 존재와 물길(曲水路), 보도시설(步道施設), 석축시설(石築施設) 및 건물터 등으로 구성된 내부 시설이 소개됐다.

또, 제석사지 제2차 조사에서는 가람 배치기 기본적으로 사비기 백제의 사찰과 동일하며, 그 규모가 매우 컸음이 확인됐다. 목탑 등 기단 기초부의 특이한 조성 방식도 규명됐다.

제석사지에서는 이미 확인된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이외에 회랑지, 중문지, 동·서건물지가 새로 확인됐다.



제석사지 목탑 주변 항공 사진.

인됐다. 목탑지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42.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동회랑지의 폭은 7.8m로 미륵사지 회랑(폭 6.8m) 등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사찰의 회랑 중 가장 넓다.

자문회의에서는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 서편에서 목탑과 규모 및 축조 수법이 동일한 방형 건물터의 기초부

(동서 21.5m, 남북 20.8m)가 확인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김용민 소장은 "향후 제석사지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사적 범위의 확대와 제석사지 인근의 폐기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삼매 갖추면 염불선 대주 스님 주장

"일심불난·삼매·성적등지·무념 등 조건을 갖추고 염불을 할 때 염불선이 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24일 법륜사에서 '선과 염불'을 주제로 제8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주 스님(동국대 강사)은 주제발표 '염불선 수행에 대한 재조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염불선은 청명염불, 참구염불 등 수행자의 근기에 맞는 염불법을 택한 후 마음을 염불에 집중해 일심불만이 되게 하고 무념의 경지에 도달시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선수행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묘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은 '사조도신의 안심사상과 그 실천'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 관세음보살과 정병, 그 조화로움

## 국립경주박물관, 12월 6일까지 전시

관세음보살과 그 지물(持物)인 정병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0월 27일~12월 6일 '관음보살과 정병'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관음보살, 자비의 화신'을 소주제로 불상과 불화의 소재가 됐던 관세음보살을, '정병, 관음보살의 상징'을 소주제로 불교 의식구이자 일상생활 용품이던 정병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특별전을 위해 백제 불상인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옛 신라 땅인 경주를 찾는다. 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시대 정병인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도 경주지역에 처음 선보인다. 보물 제1204호 조선시대

수월관음도(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는 불화승으로 유명한 의겸(義謙) 화사가 그린 것으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는 색 다른 미감을 선사한다.

정병은 인도에서 스님이 마실 물을 담은 수행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에 관음신앙과 함께 전파되면서 부처나 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물을 담은 불교의 의식구로 그 의미와 기능이 확장됐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음보살의 특징, 관음보살의 상징인 정병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품을 추가해 새롭게 구성한 전시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054)740-7535 조동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도회장 김유섭

관리과장 석산

원주목사 고종산

재무부장 명성

교무부장 경천

총무부장 성천

강원장 성천

강원장 성천

염불원장 성천

선원장 성천

울원장 성천

주회장 성천

조실장 성천

방장 성천

조실장 성천

방장 성천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 061)754-5247, 5953 / FAX 061)754-5043 http://www.seonamsa.co.kr